

# KOCHAM

## Economic Briefing

Korean Chamber of Commerce  
and Industry in USA, Inc

2014년 5월 21일(수)

### 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- 1) 뉴욕증시, 실적부진에 하락 마감
- 2) 주택대출자 20%가 '깡통주택' 보유

### 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- 1) 유로존 3월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 6개월래 최저
- 2) 인도 새 정부 기대, 최고 7% 성장 예상
- 3) 골병든 태국경제, 1/4분기 마이너스 성장

### 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- 1) 구글, 브랜드 가치 세계 1위 등극
- 2) 올해 미 자동차 리콜 규모 역대 최대 예상

## 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### 1) 뉴욕증시, 실적부진에 하락 마감

- 지난 20일(현지시간) 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37.55p(0.83%) 하락한 16,374.31에 거래 마감
  - 종목별로는,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(S&P) 500 지수는 12.25p(0.65%) 감소한 1,872.83, 나스닥 종합지수는 28.92p(0.70%) 하락한 4,096.89를 각각 기록
- 이날 뉴욕증시는 눈에 띄는 경제지표 발표가 없는 가운데, 부진한 기업 실적으로 초반부터 하락세를 보임
- 문구용품 전문 체인점인 스테이플스를 비롯한 소매업체들과 중장비업체 캐터필러 등의 부진한 실적도 주가 하락의 요인
  - 온라인 업체와의 경쟁 격화로 매출이 감소한 스테이플스 주가는 12% 이상 하락, 캐터필러는 4% 가까이 감소

### 2) 주택대출자 20%가 '깡통주택' 보유

- 지난 20일(현지시간) 온라인 주택정보업체인 질로는 지난 1~3월 모기지를 끼고 있는 주택소유자의 18.8%인 970만명이 보유한 주택의 시세가 대출잔액을 하회한다고 보도
  - 이는 전년동기 25.4%에 비하면 감소한 것이지만 과거 평균치 대비 4배에 이름
- 전문가들은 향후 몇 년간 깡통주택이 부동산 경기 침체를 지속시킬 수 있다고 경고

- 담보가치가 대출잔액보다 적은 깡통주택이 매물로 나오지 못하고 묶이면서 주택 공급 부족현상을 심화시키고 매매시장의 활력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설명
- o 한편, 미 부동산중개인협회에 따르면 3월 기준 주택의 거래 건수는 연환산기준 459만건으로 이는 지난 2012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

## 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### 1) 유로존 3월 중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 6개월래 최저

- o 지난 21일(현지시간) 블룸버그통신은 유로존의 지난 3월 중 경상수지 흑자가 전망치에 크게 못 미치며 6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보도
  - 3월 중 유로존 경상수지는 188억유로의 흑자를 기록, 하지만 2월 수정치 기록인 218억유로 흑자보다 감소, 시장 전망치인 230억유로에도 크게 하회하는 결과
- o 이 같은 경상수지 결과가 발표된 직후 미달러화 대비 유로화 환율은 0.09% 상승한 1.3713달러에 거래 중
- o 한편, 지난해엔 계절조정을 감안한 12개월(2012년 4월~2013년 3월)간 누적 경상수지 흑자가 1,694억유로를 기록, 유로존 GDP의 1.8%를 차지한 바 있음

### 2) 인도 새 정부 기대, 최고 7% 성장 예상

- o 지난 20일(현지시간) 인도 경제지 이코노믹타임스는 곧 들어설 모디 총리 정부의 개혁 조치로 경제성장률이 2015~2016 회계연도에 6.5~7%에 이를 전망이라고 발표
  - 전문가들은 제1야당 인도국민당(BJP)이 중심이 돼 구성하는 신정부가 개혁 조치를 내놓으면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
- o 이에,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전날 현재의 인도 신용등급(Baa3) 하향 위험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
- o 한편,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최근 2개 회계연도에 고금리에 따른 투자 위축

등으로 예년의 절반 수준인 5% 이하로 하락한 바 있음

### 3) 골병든 태국경제, 1/4분기 마이너스 성장

- o 지난 19일(현지시간) 태국 경제사회개발원(NESDB)은 2014년 1/4분기 GDP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-0.6%를 기록했다고 발표
  - 이는 2013년 4/4분기(0.6%) 뿐만 아니라 블룸버그가 전망한 0.4%를 크게 하회, 대규모 홍수 피해를 겪은 2011년 4/4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
- o 전문가들은 이러한 마이너스 성장률은 정정 불안이 이어지면서 과도정부의 임시 총리가 제대로 된 의사결정 능력을 발휘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
- o 한편, 태국 GDP의 10%를 차지하는 관광업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5% 감소해 산업이 크게 위축, GDP의 11%를 담당했던 자동차산업은 올해에만 3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바 있음

## 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### 1) 구글, 브랜드 가치 세계 1위 등극

- 지난 20일(현지시간) 브랜드 전문 시장조사업체인 밀워드브라운은 ‘2014 세계 100대 브랜드(2014 BrandZ Top 100)’ 순위에서 구글이 애플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브랜드로 등극했다고 발표
  - 구글의 브랜드가 가치(1588억 4천만 달러)가 1년 새 40% 증가하는 동안 애플(1478억 8천만 달러)의 가치는 20% 하락한 결과
- 전문가들은 구글이 스마트안경인 ‘구글글래스’ 등으로 혁신을 지속하고 있는데 반해 애플은 혁신 경쟁력이 약해졌다고 평가
- 한편, 상위 10위권은 모두 미국 브랜드로, IBM, 마이크로소프트(MS), 맥도날드, 코카콜라, 비자, AT&T, 말버러, 아마존이 차례로 3-10위를 기록

### 2) 올해 미 자동차 리콜 규모 역대 최대 예상

- 지난 18일(현지시간) CNBC가 올해 미국 자동차 업계의 리콜 규모가 역대 최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
  - 금년 5월 현재까지 미국에서 리콜된 차량은 총 2000만대로 집계
  - 게다가, 금년 GM의 리콜 대수는 미국에서만 1100만대를 초과, 이는 지난해 자동차 업계 전체 리콜보다도 더 많은 수치
- 한편, 지난해에 미국에서 리콜된 차량은 총 2200만대를 기록한 바 있음